

12 비전공자에게 권하는 전공 도서① 막스 루티 『옛날 옛적에』



막스 루티의 『옛날 옛적에』는 민담과 관련된 중요한 이론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준다.

(사진=언스플레쉬)



이 책은 20세기 민담 연구자 막스 루티의 강연을 엮은 것이다.

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특히 민담 연구에 있어서 그의 독보적인 업적은 민담의 형식적 특징에 대한 학문적 규명이었다. ‘형식’하면 왠지 ‘본질’과는 다소 거리감이 느껴지고, 딱딱한 주제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그에게는 이 형식이야말로 민담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며, 이야기의 환상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고도의 방법인 것이다.

소설과 달리 민담은 사건이 일어나는 무대와 주인공을 자제하게 묘사하거나 특정화하지 않는다. 이러한 민담의 특징은 이야기의 외연적 확장에 도움을 주며, 독자의 상상력에도 제한을 가하지 않는다. 그래서 돼지치기가 왕자가 되고, 가난한 소녀가 공주가 되는 결말이 이질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열린 세계관을 갖게 되는 것이다. 또한 민담은 잔인한 벌과 근사한 상, 거인과 난쟁이 같은 극단과 대조를 통해 선명성을 획득한다. 같은 사건이 세 번씩 반복되는 것도 점층의 효과와 더불어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방법이다. 민담은 우연성을 남발하지만 그 우연은 적재적소에 배치됨으로써 이야기의 극적 효과를 연출해낸다. 일곱 까마귀로 변한 오빠들은 공주가 장작더미에서 불태워지기 직전에서야 정확히 때를 맞춰 등장하는 법이다. 이러한 민담의 형식적 특성 덕분에 이야기의 전개는 지체 없이 일직선으로 나아가며, 사건들은 명료성과 확실성을 얻게 된다.

훌륭한 요리가 고유한 식재료의 풍미를 어떻게 살리느냐에 달려있듯이 민담을 활용한 콘텐츠 역시 민담이 지닌 고유의 방식에 따라 스토리를 만들어낼 때 바람직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아무쪼록 이 책자를 통하여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민담의 스토리텔링 방식이 어떤 마력을 발휘하여 우리에게 환상을 일으키는지 깨닫는 시간을 갖기를 기대한다.

『옛날 옛적에: 민담의 본질에 대하여』



김준기
민속학연구소 책임연구원

현대는 문화산업의 시대다. 자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콘텐츠가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상품이 된 것이다. 요즘 대학생들에게도 문화콘텐츠물은 더 이상 취미가 아닌 일상이 되었고, 나름의 분석과 평가를 하며 감상 이상의 관심을 기울이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러한 분석과 평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하여 비전공자일지라도 민담의 문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입문서를 소개하려고 한다. 민담은 문화콘텐츠의 중요한 소재로 이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콘텐츠의 기초가 되는 스토리텔링의 비법을 가장 잘 간직한 장르이기 때문이다.

막스 루티의 『옛날 옛적에』는 얼핏 제목만 들으면 아동용 동화책이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이 책은 민담의 본질에 대하여라는 부제를 통

해서 알 수 있듯이 민담을 학술적으로 고찰하고 있는 연구서다.

막스 루티(Max Lüthi, 1909~1991)는 스위스 태생으로 취리히 대학에서 유럽민속문화학과 교수를 역임한 문예학자다. 특히 민담 연구자로서 그의 업적은 전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으며, 민담과 관련된 저서들은 다수의 국가에서 번역되어 민담 전공자들의 지침서로 여전히 애호되고 있다.

국내에 번역, 소개된 막스 루티의 저서에는 『유럽의 민담』과 『옛날 옛적에』가 있다. 이 중 그의 대표적인 저서는 물론 1947년에 간행된 『유럽의 민담』이다. 이 저술은 유럽에서 전승되는 민담을 분석하여, 작품들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독특한 형식적 특징을 명쾌하게 밝혀냄으로써 민담 연구사에 그의 이름을 각인시킨 기념비적 연구서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민담 전공자들에게는 이 책을 필독서로 추천할 만하다. 하지만 민담에 관한 해박한 배경지식을 갖추지 못한 독자라면 이해하기 쉽지 않은 내용들도 많기 때문에 비전공자에게 추천하는 전공도서라는 이 글의 전제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는 것이 문제다.

이에 비해 『옛날 옛적에』는 정교한 분석과 체계적 기술면에서 『유럽의 민담』보다 떨어질지 몰라도, 민담과 관련된 전문적 이론을 일반인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듯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는 장점이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책의 내용들은 대중을 상대로 한 그의 민담에 대한 라디오 강연을 바탕으로 기술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책자의 진면목은 민담에 대한 그의 심오한 통찰을 비학술적인 언어로 풀어 쓴 점에서 발견할 수 있다. 1962년 초판이 나온 뒤 8판에 걸친 개정판이 출간되었고, 그의 사후에도 여러 국가에서 번역되어 읽히고 있다는 사실로도 이 책자가 지닌 가치는 입증된다.

이 책은 각 챕터 별로 유럽의 민담을 한 토막씩 들려주며 시작한다. 비록 작품 전체를 소개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이 〈쥘레꽃 공주(잠자는 숲속의 미녀)〉, 〈용퇴치자〉, 〈라푼첼〉 등 우리에게도 친숙한 작품이고, 낯선 작품이라 하더라도 저자의 설명을 통해 인용문이 어떤 특징을 지니며, 이야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

는지는 단번에 알 수 있다. 다양한 이본들과의 비교도 흥미로운 대목이다. 〈쥘레꽃 공주〉에서는 그림형제의 판본뿐만 아니라 바실레의 판본도 소개하여 에로틱한 원형적 민담의 민낯을 발견하게 한다. 또한 〈라푼첼〉에서는 더 발랄한 페터질리헨이나 뽀헨헨을 만나 마녀와 대결을 펼치는 매력적인 화소들도 접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이 책자가 지닌 강점은 형식적 특징에 대한 분석을 통해 민담의 환상적 세계관을 이끌어 나가는 스토리텔링의 법칙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이다. 마치 이야기 속에 숨어 있는 비밀을 또 다른 이야기를 통해 듣는 듯한 글의 진행은 일반 독자들일지라도 그의 안내를 받으며 민담의 본질에 쉽게 다가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

신화, 전설, 민담, 소설 등 서사문학의 전반을 다룰 때 흔히들 민담은 사적 전개 과정 중 신화에서 소설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문학형태로 간주하는 오류를 범한다. 하지만 막스 루티는 민담을 그 자체로 완성된 문에 장르라고 인정하고, 그의 저서를 통해 민담이 다른 서사문학 장르와 변별되는 독자적 형식과 세계